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과 장 서동욱 042-481-5959 서울소장 이동걸 02-568-9036
	2016년 12월 21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12월 20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문화체육관광부, 짝퉁 캐릭터 합동 단속

- 위조 상품 1,800여점(시가 6천만원 상당) 압수 및 유통업자 10명 입건 -

- 특허청(청장 최동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캐릭터 산업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21(월)~25(금) 5일간 신촌·대학로·동대문 등 서울시내 일대에서 짝퉁 캐릭터 유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 합동수사팀은 위 지역에서 국내·외 유명 짝퉁 캐릭터 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김모(남, 4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인형 및 휴대폰 액세서리 등 짝퉁 캐릭터 상품 1,800여점(정품시가 6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 수사결과, 김씨 등 짝퉁 캐릭터 유통·판매업자들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 주변에서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뽑기방’을 운영하면서 가짜 인형 캐릭터 상품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이들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학로 등 시내 번화가와 외국인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은 동대문 지역에서 의류 소매점이나 잡화점 등을 운영하면서 짝퉁 캐릭터 인형이나 의류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 이번 합동단속은 현행법상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캐릭터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상표법 적용의 한계를 해소하는 한편, 상표법과 저작권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금번 단속 사례는 지식재산권 유관 수사기관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캐릭터 상품을 무단 도용한 유통업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 본보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유관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캐릭터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단속 현장 사진 1부

붙임

단속 현장 사진

□ 뽑기방, 소매점, 의류상가 단속 현장 및 압수물품



(건국대 주변 / 신촌) 뽑기방 단속 현장 및 가짜 캐릭터 인형



(혜화동 대학로) 가짜 동전지갑 및 키홀더 등 상점 진열품



(동대문 의류상가) 단속 현장 및 위조 캐릭터를 부착한 의류

붙임

단속 현장 사진

☐ 침해단속된 캐릭터 종류 (1)



(카카오) 라이언



(포켓몬스터) 피카츄



(포켓몬스터) 파이어리



(포켓몬스터) 꼬부기



(포켓몬스터) 이상해씨



(포켓몬스터) 뽀뽀

붙임

단속 현장 사진

☐ 침해단속된 캐릭터 종류 (2)



(포켓몬스터) 토게피



(포켓몬스터) 고라파덕



(포켓몬스터) 잠만보



(포켓몬스터) 이브이



(포켓몬스터) 몬스터볼